

“北 풍계리서 기폭장치 시험 포착...핵실험 임박”

기폭 장치 실험, 핵 물질 없이 시험 실시 야외 실험이라 위성 사진으로 포착 가능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기폭 장치 실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핵 실험이 이뤄지기까지는 남은 절차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태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25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 실험에 대해 “다른 장소에서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핵 기폭 장치 실험이 탐지됐다”며 “기폭 장치 실험을 몇 주에 걸쳐 지속해서 하는 것으로 봐서 북한 나름대로 실패하지 않을, 원하는 성능 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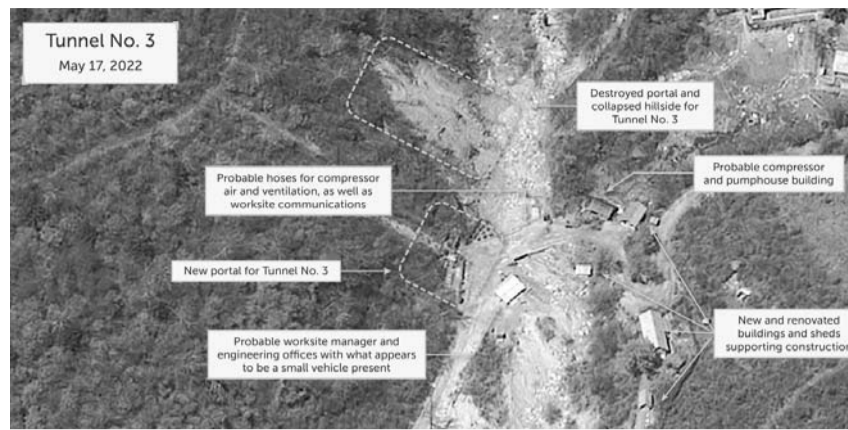
기폭 장치 실험은 핵 물질 없이 폭약의 압축 효과와 원자탄 기폭 작용을 시험하는 것이다. 기폭 장치 실험은 두꺼운 철판과 콘크리트, 흙으로

차폐된 시설 앞에서 이뤄진다. 시설 안에 설치된 초고속 카메라 등이 기폭 작용을 정밀 측정한다.

핵 기술 전문가인 이준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 실험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위성 등으로 탐지가 가능하다”며 “기폭 장치의 크기를 보고 폭발한 후의 흔적을 보고 성능을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몇 주에 걸쳐 기폭 장치 실험을 한 것은 전술 핵무기용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소형 전술 핵 등 개선된 기폭 장치를 사용하려면 핵 실험 전에 기폭 장치 실험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며칠 안에 핵 실험이 이뤄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위원은 “기폭 장치 실험은 실제 핵 실험과는 별



북,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3번 터널 주변 현장.

개의 작업”이라며 “기폭 장치 실험이 충분해야 탄두를 제작해서 실험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보다 훨씬 이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핵 실험은 강도 굴착과 환기, 핵탄 안장과 측정 장치 부설, 외부 측정 장소와의 케이블 연결, 강도 다시 메우기 순으로 준비된다. 핵 실험 날짜가 정해지면 이후 상부 보고와 승인을 받고 지휘 통제 인력 도착, 현장 인력

6·1 지방선거

이상철 곡성군수 후보 “4인가족 행복수당 50만원”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철호 후보가 4인가족 기준 연간 50만원의 행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5일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행복수당 지급은 군민들의 행복한 권리보장을 위한 것으로 지역상용권을 활용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이 돌아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매년 50개 청년창업 기업에 2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30

만원, 출산장려금 첫째·둘째까지 총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군민들의 현실적인 정주여건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100명이 거주하는 청년마을을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어린이 생태도서관 건립, 다문화가정 직업훈련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여가를 위한 섬진강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스포츠 타운 조성,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숙박업소 세박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청년이 돌아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매년 50개 청년창업 기업에 2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30

정현택 구례군수 무소속 후보 “과감한 정책 필요”



무소속 정현택 구례군수 후보는 “구례군은 소말 위기에 처했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막으려면 잔잔한 정책 몇 가지로는 어렵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례군청 공무원을 32년 역임하고 서기관으로 퇴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정현택 무소속 후보는 “서울대병원 구례 유치”라는 굵직한 공약을 내걸고 구례군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현택 후보는 “구례에 서울대

병원을 유지한다는 대표 공약을 두고 군민들은 가능하다 해보자는 분들이 많았지만, 간혹 그게 되겠냐는 회의적인 분들도 있었다”며 “하지만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크고이대로 가다가 구례가 구례라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앞으로 10년이 구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례 모의원이 구례는 인구절벽이다 안되고 인구가 많은 곳에 유치를 해야한다고 했다”며 “국회의원이란 자가 그런 이유로 유치 반대를 한다는게 가능한 것이냐”며 “서울대병원 유치는 야당 의원보다 무소속 후보가 더 유리하다. 정현택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정현택 후보는 “구례에 서울대

민주당 목포시의원 후보자들 ‘시의회 개혁’ 공약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일하는 시의회를 만들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의회 개혁안’을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 목포시의원 후보자들은 25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앞마당에서 ‘대시민 약속’을 통해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별개로 시민배심원제와 같은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윤리조사위원회’ 신설을 추진해 시민들의 관리·감독 하에 보다 투명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대표 발의 수, 통과율, 출석률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평가 받고, 조례제정 시 관련단체 간담회 등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시의원 후보자들은 “열악한 전남 서남권의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설립”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병원 확대 및 의대 신설 등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6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 미라클 DNA 퍼포먼스. 25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16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 참석자들이 미라클 DNA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586 용퇴” “사전에 논의 안돼”...박지현·지도부 충돌

민주당 내분...선거 일주일 앞 공개 충돌

박지현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이 25일 공개적으로 폭발했다.

전날 지도부가 ‘개인 의견’이라고 축소한 586(50대·60년대생·80년대 학번) 세대 용퇴와 팬텀정치 극복 쇄신안을 박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재차 정면으로 제기하자, 윤호중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86 중진들이 격분한 것이다.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남긴 와중에 민주당 지도부가 자중지란을 연출하면서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봉숭아학당’을 연상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지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어제 기자회견 이후 왜 자꾸 사과하느냐

를 주장했다.

또 “우리 당은 팬텀 정치와 결별하고, 대중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잘못된 내로남몰을 강성 팬덤이 감쌌고, 이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 강성 지지층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처법회 최강욱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신속 추진도 공언했다.

박 위원장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지도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고, 일부 참석자들이 발언을 이어가는 박 위원장을 쏘아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러자 86 운동권인 김민석 총괄 선대본부장이 “일부 팬덤의 잘못된 행태는 극복해야 하나, 권리당원의 권리 증진도(민주당의 혁신에) 있었음을 놓쳐선 안 된다”면서 강성 지지층을 염호했다.

뉴스스

분들이 많았다”며 “당을 책임진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사과드리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날 윤호중 위원장이 자신의 호소문에 대해 지도부 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로 안다”고 의미를 축소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며 “586의 사명은 민주당의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이제 그 역할을 거의 완수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 같은 지역구 4인 이상 출마, 약속대로 금지해야 한다”면서 세대교

전남교육감 후보 지지세 대결 ‘장석웅 VS 김대중’

전남교육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단체들 간 후보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소속 교무행정사 분과는 25일 장석웅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전남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700여 명의 교무행정사들로 구성된 학비노조 전남지부 교무행정사 분과 200여 명의 운영위원들은 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선언식을 열고 “참다운 노동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보유한 장 후보만이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처우개선을 실천해 갈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교무행정사 분과 대표는 “동일가치 노동과 동일임금 원칙을 견지하며, 교무행정사의 호봉제 전환을 위해 장 후보가 적극 노력했으므로 믿는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무행정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처우가 개선되도록 장 후보가 앞장 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지인 등을 통해 장 후보 지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민의 투표참여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누리호 2차 발사일 내달 15일로 확정

발사예비일 내달 16~23일

정부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일을 예정대로 내달 15일로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 2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 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는 6월 15일을 발사예정일로 확정했다.

이번에 발사가능기간을 확정된 발사관리위원회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

회로서, 오대석 1차관을 위원장으로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의 주요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는 누리호의 발사 준비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에서 개최됐다.

2차 발사를 위한 준비현황과 향후 발사까지 최종 준비 작업, 발사 조건(기상, 우주환경, 우주물체 충돌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발사에 정밀을 정했으며,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사예비일(6월 16일~6월 23일)을 설정했

다. 누리호는 1차 발사 결과에 따른 기술적 개선 조치를 마치고 1단 및 2단의 단단 조립을 완료했으며 1·2단 내부에 추진기관 부품을 구동하기 위한 화약 장치를 장착하면서 3단에 성능검증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누리호에 탑재하게 될 성능검증위성은 지난 5월 16일 나로우주센터로 입고돼 누리호에 장착되기 전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초까지 누리호 3단부에 장착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9일에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누리호 발사를 위해, 2차 발사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비상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진행했다.

최옥수 무안군수 후보 “남악·오룡지구 택시 준공영제”



더불어민주당 최옥수 무안군수 후보는 고질적인 남악·오룡지구의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남악택시 67대를 BTL 사업을 통해 준공영제를 도입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최 후보는 “남악·오룡지역은 택시 부족으로 최소 40분에서 1시간 가량 기다리는 것은 비일비재한 실정”이라며 “민택시를 오통까지 호출하면 기본요금 때문에 이를 꺼리고 있어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그는 “남악택시 67대를 보상 협의해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지자체가 보상하는 준공영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인을 마련해 의회와 조율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남악·오룡주민들의 불만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 동안 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 이번에 택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공약을 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과 함께 공약을 수립 실천하고 군정을 이끌어 가면서도 군민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행복한 무안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호메만평

이태헌

검찰공화국의 무소불위

공직자 처벌불능

칼질해야겠군

태헌